

韓國科學財團

“複合的인
支援体制구축”



崔 順 達 이사장

금년은 우리나라 과학계 최대행사로 과학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韓國科學賞과 數學올림피아드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한 해이고, 더 나아가 성숙된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의 기초과학육성 중추기관으로서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기초연구선진화 및 고급두뇌정예화

10년의 전통과 기반을 가진 韓國科學財團은 새해를 맞아 운영목표를 外的으로는 기초연구수준의 선진화와 고급과학 두뇌의 정예화로 국가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2천년대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에 두고, 內的으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순지원업무 수행에서 진일보된 지원, 조정, 집행의 복합적인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두고 있다.

◇ 연구능률의 극대화에 주력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방대한 대학의 연구잠재력 활용이 촉진되도록 탁월성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둘째로 자생적 연구집단 형성을 유도하여 대학별로 특성화, 전문화를 정착시키며, 셋째로 별개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초연구비지원, 인력양성·확보, 과학기술 국제교류사업을 연구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연계 체제가 되게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을 높이며, 넷째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선진국 중심의 협력교류사업외에 개도국에 대한 기술공여사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무역환경 개선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민간차원의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 다섯째로 연구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원의 복지향상과 연구의욕을 북돋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구능률의 극대화를 기하여 과학기술 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할 방침.

◇ 산학협력과제연구 및 학회특화사업추진

금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연구지원 사업은 基盤基礎研究와 특정목적 基礎研究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금년부터는 산업수요가 높은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學産協力課題研究를 수행하는 工學研究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기초연구비는 1987년의 90억원에 비해 대폭 증액된 1백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편 기초연구의 육성을 위해 작년의 數學올림피아드 대회와 같은 學會特化事業의 적극추진과 격년제로 실시키로한 韓國科學賞시상제도를 발전 보완 시킬 계획이다.

◇ 고급연구인력 양성 및 확보

고급연구인력양성·확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연구요원해외연수(Post-Doc)는 연수지역을 다변화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美國立科學財團(NSF)의 工學研究센터(ERC)와 같은 선진공학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자는 귀국후 學·産협력과제의 연구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목적 기초연구지원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지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참여기회를 대폭 늘려나가고 금년도에는 2백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박사과정논문연구비도 50명을 지원하며 해외과학자 유치의 경우 금년도는 192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Post-Doc사업은 2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연수희망자와 연수기관의 사업확대요청에 따라 민간출연금을 조성하는등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 국제교류 협력확대

또한 국내연구수준의 국제화와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을 공여하는 과학기술국제교류사업은 1987년보다 33% 증가한 20억원을 배정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韓國科學財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외국기관의 과학협력양해각서 교환을 통한 과학협력사업은 현재 美國, 獨逸, 日本, 프랑스, 英國, 이집트, 스웨덴등 7개국 8개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어 공동연구, 공동세미나개최, 과학자상호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對外技術供與事業은 1987년 정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보다 효과적인 기술공여업무수행을 위해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수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기마련

또한 學會特化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말 실시한 제1회 수학경시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선수

6명을 오는 7월 호주 캔베라에서 개최되는 제2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대회에 파견할 계획이다. 해마다 국내대회를 실시하여 국제대회에 파견할 이 사업은 기초과학의 관건인 수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덕 연구단지내 체육공원 건설

한편 대덕연구단지내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위한 휴식, 위락,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학·연·산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연구단지내 체육공원건설은 동부지역에 이미 확보된 자연녹지 약 13만평 부지에 9홀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올 중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수영장은 완공과 함께 기증회사인 동양화학으로부터 인수하여 오는 4월경 문을 열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연구단지가 명실상부한 쾌적한 전원형 선진과학도시로서 변모하게 될 것이다.

◇ 학·산·연 교류센터 착공

한편 대학, 연구소, 기업 상호간의 연구교류촉진을 지원키 위해 설립되는 學·研·産研究交流센터는 금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대덕연구단지내 1만5천평의 부지에 들어설 이 교류센터는 학·연·산 및 국내외 과학기술자에게 연구협력교류의 광장(만남의 광장)을 제공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위치, 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연구지원 및 공동이용 시설의 이중투자를 배제함으로써 제한된 연구자원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이 센터의 주요기능은 기업이 대학의 연구잠재능력과 연구단지 연구결과 그리고 우수한 시설을 활용하고, 기업과 대학이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학·연·산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이 과학재단은 2000년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새해에도 보다 알차고 발전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